

연 중 제23주일

기도서 P. 429 A해

제1독서(에 제	33, 7-9)
제2독서(로 마	13, 8-10)
복 음(마 태	18, 15-20)

숲 정 이

발행	천주교 전주교구
편집	사 목 국
인쇄	관 리 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③ 5098 ③ 3201

□ 강론



대 화(對話)

법 석 규 신부

요즈음 우리들 생활용어 가운데 대화(對話)라는 말이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대화라는 말은 서로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대화라는 말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 이유는 대화의 필요성이 그만큼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우리 생활은 분주해졌습니다. 부지런히 뛰지 않으면 그만큼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변화무쌍한 현대 세계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세계의 변화는 종전의 백년이 걸려서 닥쳐올 변화가 오년이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가 빠른 세계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빠른 변화속에서 그만큼 움직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살에서 다섯 살까지 살았는데 옛날 같으면 할아버지가 되도록 격어야 할 변화를 불과 오년 사이에 당하고 보니까 현기증이 날 정도로 분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한 집에 사는 아버지를 일주일에 한 번 밖에는 뵈 수가 없고 아버지가 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한 달이 걸려도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부자지간에도 대화의 기회가 없고 대화를 못하니까 서로의 이해가 없습니다. 대화의 빈곤이 가정의 불화를 가져오고 대화의 결핍으로 직장의 상하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국제간에는 외교의 단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부자지간에, 직장의 부하와 상사가, 국가와 국가간에 대화가 원만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염려하는 여러가지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너에게 잘못된 일이 있거든 단 둘이 만나서 그의 잘못을 타일러 주어라 그가 말을 들으면 너는 형제 하나를 얻는 셈이다. (마태오 18, 15)”

우리 주변의 많은 문제들이 서로 만나서 일찍이 이야기를 했더라면 해결되었을 일이 대화가 없어 실마리를 찾지 못해서 문제가 크게 번져서 가정을, 사회를, 세계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어 대화를 합시다.

<성심여교 교장>



손바닥으로...

세계 여기저기가 시끄럽다. 이란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가까이서 미국 정찰기에 대한 도발도 있었다. 왜들 이렇게 되어가는가. 문제다. 힘에 의한 선제공격도 그렇고, 보복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오직 악순환만 계속될 뿐이다. 어느 하나가 멈출 때까지는 말이다.

일찍이 이 나라의 뜻있는 선각자들은 천주교를 하나의 학문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학문의 차원에서 연구되던 천주학은 신앙의 차원인 천주교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사상이나 생활양식은 이를 쉽게 받아드릴 수 없었고, 게다가 겹친 정치적인 사정은 피를 부르게까지 되고 말았다. 이때에 천주교인들은 자신과 신앙을 지키는 방법으로 피신하는 길이나 죽음을 택했다. 악순환은 있을 수 없었고, 피를 먹고 자란 신앙의 열매만 자라나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잡혀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는 칼을 뽑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어리석은 정도로 단호한 한 마디였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이다.” 우리의 신앙 선조들도 그 가르침에 따랐다. 십자가에 못박혀 죽음으로써 그리스도가 끝장이 난 것이 아닌 것처럼, 100여년의 긴 박해도 이땅에서 천주교의 울을 어찌지는 못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힘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것은 순리를 거스리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다. 정치가 그렇고 교육이 그러하다. 경제질서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러하다. 직장윤리도 그러하고 사회질서도 그러하다. 진리와 사랑의 무한한 힘만이 해낸 뿐이다. 분명히 쉬운 길은 아니다. 힘은 오직 반짝하는 섬광에 불과할 뿐이다.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울 수 없는 이치와 같다.

숲 정 이 산책



두 사람이 마음에는
함하여 칭하면...

복자 성월에...

김 준 호 신부

□ 200주년 기념 사업

200주년이란 1984년을 정점으로 삼아 흘러간 200년사의 자취를 찾아 앞날을 가늠해 보고저 하는 기념행사가 아니겠는가?

한국 주교단은 200주년 기념행사를 온 천하에 알리고尹공희 대주교님을 위원장으로 모시어 행사부문(景濶동 주교), 문화부문(金남수 주교), 회의부문(朴정일 주교)으로 각각 분담하여 행사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景주교님은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행사야말로 3년후에 있을 200주년 기념행사를 치루기 위한 예행연습이라고 밝힌바 있다.

행사계획을 년차적으로 구분한다면 금년은 이웃 전교의 해로 정하고 82년을 본당 정립의 해로, 83년을 교구 정립의 해로, 84년을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공의회를 각각 개최하고, 교황님을 모시고 복자 시복식과 성인 시성식을 갖고저 함이 200주년 기념사업의 최종 목표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교구에서도 200주년 기념행사와 사업에 부응코저 이미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차에 모임을 가진 바 있다. 200주년 준비위원회에서는 전주교구 설정 50주년 위원회가 이미 마련한 계획을 토대로 하여 우선 4가지 계획안을 수립하였다.

- ① 50년간의 교구발전사 간행
- ② 50주년 기념회관 건립
- ③ 우리 교장 순교자들의 시복, 시성운동
- ④ 성직발굴 및 치명자산 기술 개발

그외 성직자 묘소 일원화 등 사제단 평신도들의 권익을 받아드려 연구 검토키로 하였다.

현재 실현중에 있는 한가지 사실은 치명자산 철도주변을 미사봉헌 예물로 토지 3,000여평을 매입한 바 있다.

순교자 이 누갈다와 유 요한의 동정부부는 온 천하에 빛나 세계 도처에서 치명자산 기술을 찾는 순례자들로부터 기대될 날이 머지않아 올 것임을 우리는 믿는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피와 땀으로 순교성지들을 성역화하고 치명자들의 후손임을 만방에 자랑할 때가 왔음을 우리는 확신한다.

200년간 장족의 발전을 가져온 한국 성교회가 포교지방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세계 속에 「코리아」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내 보자.

하느님께서서는 200년 기념사업에 풍성한 강복이 있으시길 우리 모두 함께 두손을 모우자.

9월은 복자성월(福者聖月)이다.

불신(不信)과 불의(不義)의 시대, 부정 부패로 가득찬 사회에 살면서 순교라는 것을 인정하고 순교자의 용기와 사랑을 추모한다는 것만도 대단히 유익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역사의 흐름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회와 시대의 좋고 그릇된 영향을 부지중에 받지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처럼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실일수록 항상 그것을 보는 눈을 새롭게 하고 순수하게 함으로써, 불사조(不死鳥)처럼 역사속에 영구히 되살아 나는 그 참된 뜻을 더욱 깊이 느끼고 재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순교(殉教)는 자기 목숨을 바쳤다는 점에서 순직(殉職)이나 순국(殉國)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또한 매우 다르다. 순교는 지상(地上)에서 인간이 보는 눈 앞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긴 하지만, 단지 정의(正義)나 의무(義務), 또는 애국(愛國)이나 애족(愛族)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훌륭한 분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영역에 속해 있다. 100여년전에 우리나라 순교자들이 처해있던 상태는 요즘말로 반국가(反國家), 반민족(反民族)보다도 더 큰 죄를 범한 상태이며 벌칙도 삼족(三族)을 멸하는 극형이었다.

이처럼 차원이 아주 다른데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어떤 순직자, 어떠한 순국자들 보다도 더욱 고독했던 것이다.

어떤 학문적인 이론이나, 어떤 이데올로기에서 나오는 확신에는 최후까지 오만과 고집의 그림자가 남아있어도 인격신(人格神)에 대한 신앙과 사랑에는 그런것이 없다. 애주(愛主)는 애지(愛智)보다 더한 것이었다. 그러기에 순교자들의 마음은 순학자(殉學者)들의 마음보다 더욱 가난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가난했던 눈물에는 이미 영원한 손길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흔히, 순교자들은 생명을 초개(草芥)처럼 버렸다고 말한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오히려 정 반대다. 그들만큼 자연의 뜻을 작은 털끝하나에 이르기까지 확신하고 아낀 자가 누구랴! 어느 누가 그들만큼 사심(私心)없이 인류 공동체의 의식속에 살았으며, 형제들을 그들만큼 사랑했겠는가? 오히려 생명을 초개처럼 버리는 것은 불신(不信)과 아집(我執)에 가득찬 현대의 우리들이 아니겠는가!

다시 맞는 복자성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들의 순교 정신이란 무엇인가? 좀더 깊은 의미로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추석 「합동위령미사」(9월12일)에 모두 참여합시다!

□ 금·은·보석·시계 는
남문열 교수집을 찾아주세요

금 보 장

(전·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저)
전주 남문열(대지여관 입구)
전화 ④4989(남구팔주) ④4988

귀가 어두운 분께 보청기를 권합니다
의료 과학 기계 시약

東南醫療科學器械商社

전주시 서노송동 639~40
(중앙성당 옆)

☎ ③ 6900 야간 ⑧ 0496
金 樂 均(요셉)

전기 온수기 가스렌지 및 시설
가스 온수기 각종 씽크
백금표 씽크 주방

(東南綜合 씽크商社)

전주시 서노송동 639~40

(중앙성당 옆)
☎ ③ 6900
金 樂 均(요셉)

민족사의 누룩이 됩시다

이 나라에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천주교회가 선지 2세기가 가까와 오고 있으며, 그 교회 조직이 성숙하여 세계 단방에 드러난 경사로서 '조선교구 설정'이 있는 후금년으로 150주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오랜 역사는 순교의 피로 얼룩진 가지밭 길이었습니니다. 우리의 선열들은 일찌기 진리에 대한 분발심을 지녀 스스로 나서서 복음을 나라안에 배워 들여와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성직자를 요청하고 조선 교구의 설치를 추진하는데에 목숨을 바쳐가며 애진하였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자발적 교회설립 역사는 세계 선교사에 드문 위대한 일이며, 그 초기 교회 신자들은 민본 복지 사상을 지닌 실학과 지성인들이었습니다. 이로써 천주교회는 이 나라 역사에서 근대의 새벽 빛을 열었으며, 이겨레의 정신사 복판에 터를 잡아 씨를 뿌리고 뿌리를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선열 만여 명 순교의 피가 복음의 씨로서 이 강토 방방곡곡에 뿌려졌습니다.

진리를 위해 흘린 피는 영원히 헛되지 아니하니, 오늘 한국 천주교회는 전국에 걸쳐 14교구 130만의 신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빛나는 교회사를 기리고, 오늘의 왕성한 교세를 드러내면서, 우리는 감격과 함께 무거운 사명을 느낍니다.

이 나라 이 겨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일제의 식민지 36년에서 벗어나 해방이 되었지만 동시에 초래된 국토분단의 아픔이 이어져 어느덧 다시 36년, 우리 겨레는 지금 유물론과 배금주의, 권력의 획일주의 아래 지치고 허탈함에 빠져 있습니다. 이 겨레는 지금 역사의 올바른 선도자, 양심의 구심점, 희망의 밝은 빛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 갈구를 채워 줄 역사의 근본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 변혁의 누룩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겨레의 역사안에서 누가 누룩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느님의 법안에서 양심과 정의와 일치성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의 우리 자신입니다. 하느님이 원래 이 도리를 가르치셨으니 오늘 우리는 기도로써 스스로의 본분을 다짐하면서 이제 실천으로 나아갑시다. 이방의 모든 형제들, 아직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들이 의심하고 방황하며 괴로워할 때 우리의 실천을 보고 희망을 지닐 수 있게 합시다.

오늘 우리는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을 맞이하여 빛나는 교회사를 자랑으로 여기는 데서 그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 십자가를 지고 순교 선열들의 장렬했던 길을 따름으로써 이 겨레의 역사적 운명에 부활을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은 길은 '수난사'로 특정 지워진 우리겨레의 역사로 하여금 인류 평화에 크게 공헌하게 하는 소명의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누룩으로서의 실천, 십자가를 통한 부활과 새신, 평화와 통일을 내다보며 오늘 진국의 교우 형제들이 한마당에 모여 장엄한 대열을 형성합시다.

조선교구 설정일에 1981년 9월 9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김 수 환 추기경

요십이 (422) 김병오

이란의 라자이 대통령과



바흐나르수상이 폭사당함



그사람들이 감투를"



어떻게 썼길래 그렇게"



신앙인의 임무

- ◎주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미사에 참례하고, 영성체를 모십니다.
- ◎우리의 육신도 주님께 받은 주님의 것이므로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때까지 육신을 건강하게 지켜야 하며, 주님의 사업을 범상하게 함이 우리들 신앙인의 의무입니다.

동남외과의원
박 임상병리검사실
병리사 박영휘(루가)
군산시 평화동 103
전화 ㉠ 3900·5464

허약한 분, 병약한 분에게!
□보신·보양·고단위 영양 식품
(성모병원) 토 롱 센 타

- ◎토롱탕(한방 고단위 영양식품)
- ◎전자썩짐기(신경통, 위장병 치료기) 판매

※(보·허122호/신안특허7328호)
전주 성모병원 3층 303호
(전화주문 배달함) 전화 ㉠ 4567
활 수 산 나

□신장개입
금·은·보석 고급 시계

보 석 장

군산시 중앙로 1가 경찰서 부근
(조흥은행 앞)
전화 ㉠ 2 5 1 3
한 철 재 (비오)

□보 건 향 상
※ 교우 여러분을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범 모 약 국

전 화 ㉠ 5 3 1 9
김 영 춘(아오스딩)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여산 박창신 신부 입원 : 지난 8월 22일 박신부님께서 전북 대학병원에 입원 가료중 정확한 진단을 위해 서울 성바오로 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고 있다. 신부님의 조속한 쾌유를 위해 교우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 군중후원회 월례회 : 9월 18일(금) 오후 7시, 장소-가톨릭센터 회의실, 대상-임원 및 회원

(중앙) 전화 ③651번
 주임 신부 보좌 신부 문유 박김 정종인병 구
 사도 회장 사도 회장 김병환 수

- ※ 유증환 신부님 영명축일 : 9월 21일입니다.
1. 사도회 월례회 : 9월 10일(목) 오후 7시30분 본당신부님 사무실, 회장·구역장·반장 신심단체장 참석
 2. 추석 합동 위령미사 : 9월 12일 본당에서 오후 7시30분, 교회포지에서 오전 11시에 4지구 신부님 합동 집전
 3. 병자방문 : 9월 8일(화) 병자를 모시고 계시거나 병자 방문 요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4. 성령세미나 : 9월 21일(월)~26일까지 희망자는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회비-3천원
 5. 에두왈(해성고) 공개 썰 : 9월 6일 9시미사후 강당
 6. 학생을 위한 야외미사 : 복자성월을 맞이하여 학생들의 단합과 신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9월 5일(토) 오후 3시 성당에서 출발 미사시간-3시30분, 장소-치명자산, 대상-중·고·대학생 전원 참석 바람
 7. 순교자 헌양대회 : 9월 26일(토) 오전 11시 치명자산
 8. 성인 남자반 교리시간 변경 :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미사후, 주일 10시 30분 미사후
- 지난주 봉헌금 : 528, 032원

(서학동) 전화 ②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수
 사도 회장 김병환 수

1. 사도회 월례회 : 공식미사 후
 2. 유아세례 : 매월 첫주일 공식미사 전
 3. 예비자 교리시간 : 어린이(국민학생)-일요일 오후 3시, 부녀부-매주 공식미사 후, 일반 및 청년-매주 화요일 저녁 8시
 4. 성서교리 :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창세기부터 (구역성서, 성서 40주간 책 지참 바람)
 5. 추석합동 위령미사 : 연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사시간-새벽 5시30분·저녁 7시30분
 6. 반장회의 : 다음주 공식미사 후
 7. 다음주 전례 : 독서 및 복사-김낙균·한형수 회장님
- 지난주 봉헌금 : 170, 620원 교무금 : 112, 000원

(숲정리)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수·유②9567 사도 회장 이강노

1. 사도회 월례회 : 공식미사 후 회의실
 2. 1일피절 안내 : 9월6일 오전 5시30분 치명자포지 참배-오후 7시30분 미사마감, 강사 두분 신부님 초청 참가범위-청년회·여성회·일반 젊은이들은 피절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추석 합동 위령미사 시간안내 : 아침 6시, 오후 7시 30분, 교회 공동포지-11시
 4. 주일학교 아동 선가경연대회 : 9월 20일 4학년이상 아동들은 매일 오후 5시 선가연습 참가 미사시간 변경 : 주일 아침-6시, 공식-10시, 오후 미사-7시30분, 평일 아침미사 없고 오후 7시30분
 6. 차주 전례담당 : 해설-이기호 독서-이현일·이귀태, 기도-노재두
 7. 주일학교 후원회 주보축일 : 9월 8일 (화)성경공부-오후 2시, 미사-오후 4시
- 지난주 봉헌금 : 259, 720원

(노송동) 전화 ②7032번 주임 신부 김정원 사도 회장 박춘근

1. 제21차 성령 세미나 : 14일(월)~19일(토)까지 매일 저녁 8시-10시까지,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 추석 합동 위령미사 : 12일(토) 오전 6시와 저녁 7시 30분 미사 각가정에서는 빠짐없이 미사 예물을 봉헌
 3. 인후아파트 특전미사 : 매주(토) 오후 4시 장소-17동 104호, 전화 ④0723
 4. 수녀님들을 위한 베소라성서 특강 : 내일부터
 5. 본당 꾸리아 회합 : 오늘 오후 2시 각 팀의 간부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6. 혈제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후
 7. 금주의 성경 읽기 : 신약의~요한복음 전체
 8. 미사시간 변경 : 7일부터 매일 아침 6시(평일에 저녁 미사 없음), 화요일-오전 10시 30분, 금요일-오후 3시 30분, 토요일-오전 10시 30분(노인미사) 오후 4시(아파트미사), 오후 6시(학생미사), 일요일-오전 10시, 오후 3시(어린이미사) 저녁 7시30분
- 지난주 봉헌금 : 305, 665원

(전동) 전화 ②3222번 주임 신부 김병환 수
 사도 회장 박병준 수

1. 예비자 : ①특별교리-15일~25일(오후 8시~9시) ②2단계 입교-20일 10시, ③영세-26일 오후 7시30분
 2. 추석합동 위령미사 : 오전 5시30분, 11시(교회포지) 오후 7시30분
 3. J·O·C 창립 : 9월6일 오전 11시
 4. 주일학교 교리교사 임명 : 유치반-최미경·정진희, 1학년-법진우·조명진, 2학년-김영진·최종숙, 3학년-양지희·김옥선, 4학년-송경렬·송혜선·방기갑, 5학년-유영희·김현배, 6학년-임영숙
 5. 구역회합 지도위원 모임 : 9월8일 오후 8시
 6. 젊은이미사 : 매주 수요일 저녁미사(7시30분)
 7. 흑판 기증 : 김중순(발라바), 최덕순(막달레나) 감사
 8. 사도회 : 공식미사후
 9. 유아세례 : 학생미사후(8시30분 미사)
 10.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 해설-박종주, 독서-①이현재 ②이주영
 공식미사 : 해설-양현홍, 독서-①신일균 ②장금태
 저녁미사 : 해설-경양수, 독서-①변해식 ②김동수
- 지난주 봉헌금 : 430, 115원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유영도 사도 회장 양상열

1. 사도회 월례회 : 공식미사후
 2. 추석 합동 위령미사 : 오전 6시, 오후 8시
 3. 오늘 200주년 선교 특별헌금 : 모두다 신자 배가운둥에 앞장섭시다
 4. 제대초 봉헌 : 장병순(테레사) 할머니
- 지난주 봉헌금 : 397, 835원

(복자)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김희남 보좌 신부 조성호 사도 회장 조성호

1. 200주년 기념주일 : 오늘 특별헌금 있음
 2. 추석 합동 위령미사 : 9월 12일(토) 저녁 8시 교회포지에서 오전 11시 미사 있음
 3. 성우회 월례회 : 월 월례회의를 세계주로 연기합니다 (김규원·염규철 형제)
 4. 애령회 월례회 : 9월 7일(월)
 5. 주일학교 개화 : 오늘부터 오후 2시
 6. 봉헌금 미수 속히 완납 바랍니다
 7. 다음주 전례 : 해설-강기연, 독서-①이주자 ②최소피아
- 지난주 봉헌금 : 348, 301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채수현

1. 사도회 월례회 : 저녁미사 후
 2. 선영을 위한 위령미사 : 아침 6시 ※ 교회포지 미사(4지구 합동)-11시(밤미사 없음)
 3. 꾸리아 회합 : 다음주 오후 2시
 4. 은퇴 신부님을 위한주일 : 영적 기도와 물질 예물을 드립시다
 5. 이루갈다·유요한 복자위에 오르도록 참배와 기도!
- 지난주 봉헌금 : 122, 130원 교무금 : 168, 000원